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전남’ 지구촌 축제의 장으로

도, ‘2024~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추진...5대 자원 활용 축제·둘레길, 남도미식, 웰니스, 남도 K-컬처, 농·산·어촌 등

전남을 전 세계인들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마케팅 대전이 시작된다.

전남도는 12일 전남의 독특한 테마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 축제의 장으로 키우기 위한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어디에 선보여도 손색이 없는 ▲축제·둘레길 ▲남도미식 ▲웰니스 ▲남도 K-컬처 ▲농·산·어촌 등 5개 관광 자원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고 유 브랜드화한 뒤 ‘세계관광문화대전’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글로벌 관광문화도시 전남’으로 키우겠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전남 방문의 해(2022~2023)’ 기간 치러진 전국대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남도음식문화대전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남만의 로컬 콘텐츠를 확인한 만큼 선포식(6월 17~18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테마별로는 ‘축제·둘레길’의 경우 경쟁력을 확인한 전남 로컬 축제를 세계의 인기 축제와 연계, 글

로벌 인지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태국 송크란 불축제를 찾는 세계 여행객들이라면 장흥 불축제도 찾을 수 있도록, 베트남 립동성 달랏 꽃축제를 여행 리스트에 올려놓는 것처럼 한 평 국향대전도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축제 세계화를 위한 교류 확대에 나서 축제 경쟁력과 함께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남도의 맛을 활용한 축제 경쟁력과 로컬 콘텐츠도 강화한다. 국제남도음식문화대전과 연계한 ‘2024 남도 주류페스타’, 전통주 활용 하이볼대회 등을 열어 막걸리·전통주·수제 맥주 등 ‘전남의 맛’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남 해양주조장, 강진 병영양조장, 담양 담주브로이 등 지역 유명 양조장을 둘러보는 남도 명품 양

조장투어 상품도 발굴, 전 세계 유튜브들에게 소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남 천연 사찰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명상시장’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콘텐츠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체험·꽃스님들과의 토크콘서트 등으로 명상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전남 20개 자연휴양림,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산림·해양 자원으로 활용한 치유관광 프로그램도 마련, 세계 여행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남도 K 컬처’ 분야는 남도 고택·종갓집에서 머무르면서 중가 음식과 다도 등을 체험하고 지역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활용한 축제 마케팅도 진행한다.

전남도는 글로벌 여행객들 외에 ‘고향에(愛) 여

행가자’ 사업으로 한 달 이내 체류하며 지역을 아는 고향품에 살아보기, 당일치기나 하루 일정의 고향 나들이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여행객들 발길도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남도는 국내외 유튜브(틱톡)를 활용한 ‘글로벌 여행 유튜브(틱톡) 페스티벌’을 열어 세계관광대전과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한편, 전남관광플랫폼, 온라인 여행사(OTA) 등을 통해 특화 관광상품 개발·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방문의 해’ 기간 확인한 전남의 관광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3년 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열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매력 도시 전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료·생활·행정 실은 ‘어(촌)복지버스’, 전남 섬 달린다

해수부, 신안 대기점도서 시범사업 20여 섬 주민에 이미용·비대면 진료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 시범사업을 신안 대기점도를 기점으로 지난 8일 본격 시작했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생활복지 사업이다. 전국 50여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3000여 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한다. 이중 전남의 20여 섬, 500여 주민은 아·미용, 목욕,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다.

전남은 전국 섬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복버스 시범사업이 섬 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첫 방문지로 선정된 신안 대기점도는 육지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 4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이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45분 가량 거리에 있어 의료 및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어복버스를 통해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인터넷 통신망과 모니터를 통해 비대면 화상 진료, 약 처방 및 택배 배송, 대면 진료 예약 서비스 등의 료 서비스가 진행됐다. 또 섬 지역 주민의 고령화와 교통 불편으로 접근이 어려운 아·미용, 목욕 서비스

등 기초생활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 주민은 지리적 특성상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더 많은 섬지역 주민이 의료 및 생활 서비스를 받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어복버스 시범사업은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돼 5월까지 20여섬,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대증원 찬성·집단행동 반대” 강기정 시장, 페이스북에 의견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집단행동에 반대한다”며 “지금의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대생의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올리고 “정부는 강경하고, 의협은 고집스러워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릴 것을 제안한다(의과대학 100명, 공공·필수의사 200명, 일반의사 100명)”며 “이 안은 2019년 만들어졌지만, 당시 의협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협도 의대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백·황칠·돈나무...반려식물 키우세요” 광주시, 25~30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온라인 선착순

광주시는 “25일부터 30일까지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식물과 함께 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식물을 심고 가꾸는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 생활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반려식물은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이 두고 교감을 나누며 남녀노소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의미한다.

광주시가 이번에 무료로 나눠주는 반려식물은 동백나무, 황칠나무, 돈나무 등 3종이며, 3주간 시민 2000명에게 1인당 종류별로 1주씩(총 3주)을 제공한다.

시는 행사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고, 준비 수량이 소진되면 마감한다.

일부에선 노인층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

운 온라인 예약 방식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광주시는 일시적으로 시민이 몰릴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만큼 양해해달라는 입장이다.

예약자에게는 알람톡으로 통보되며, 25일부터 30일까지 서구 서장동길 322 호남조경수유통센터에서 신청한 반려식물을 수령하면 끝이다. 주의할 점은 25~28일까지는 접수번호 끝 자리가 홀수일이면 홀수일에, 짝수일이면 짝수일에 교환할 수 있으며, 29~30일에는 접수번호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

정강욱 광주시 녹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나눠주는 반려식물은 키가 작아 집안에서 키우기 좋으며, “집안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우울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 반려식물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하리” 공무원노동조합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노동 제22대 총선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 5월부터 시행

전남도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 수를 확충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 각 시·군에 배치된 조사원은 감면 유예기간 종료 시기 전에 감면 부당성을 방문해 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도비 100% 보조로 이뤄진다. 4월 시·군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고, 채용된 조사원은 11월까지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의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대상 부당성을 취득하면, 감면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감면 유예기간(1년~5년)에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유예기간에 감면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22%)의 합계액을 추징하게 돼 가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이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해 감면 부당성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부과절차기간 경과 전에 감면 요건 위반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지방세 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엑스포관리 주식회사 임원(사장) 공모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집합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여수엑스포관리 주식회사 임원(사장) 1명
- 원서접수
 - 기 간: 2024.03.13. 17:00 ~ 2024.03.27. 18:00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장 소: 여수엑스포관리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우편번호 59723,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1, 국제관 비동 2층 경영기획부)
 - 방 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기타사항
 - 응모지원서 등의 제출서류 서식은 여수엑스포관리 홈페이지(www.expo2012.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엑스포관리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경영기획부, ☎ 061-659-2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
여수엑스포관리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실11개, 히노코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可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윤진해(510602-1XXXXXX)
• 최종주소: 순천시 서면 구만정길 12
• 등재기준지: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471번지

피상속인 망 윤진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순천지원 2024년55호로 신청하여 2024년 2월 2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과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3월 13일

• 상속인: 1. 윤지혜(860304-2XXXXXX) 광주 북구 임곡로 23, 201호(일곡동)
2. 윤지연(880103-2XXXXXX) 순천시 용당삼산로 63, 107동 102호 (용당동, 덕진순천의방)

• 신고기간: 2024. 3. 13. ~ 2024. 5. 23.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윤지혜의 주소

산행안내

3월16일(토)

▲ 광주호산회 3월 16일(토) (제69차) 정기산행 해파리길 15코스 호미반도 둘레길(05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자랑출발 05시 40분 진월동 육교 밑 05시 50분 배운우재 06시 롯데백화점 06시 10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72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교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